원효 탄신 1400년 기념 특별전 일본서 열린다

동국대, 가나자와문고서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일본에서 열린다.

동국대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 이하 HK연구단)은 오는 8월 20일까지 일본 가나가와 현립 가나자와문고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를 기념하는 공동 학술대회도 6월 24일 열렸다.

'안녕하세요! 원효법사-일본에서 발견한 신라 · 고려 불교'를 주제로 하는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가나자와문고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소재한 △원효의 〈판비량론〉 단간 △〈대혜도경종요〉 △〈대승기신론별기〉 △〈보살계본지범요기〉 사본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의상의 〈일승법계도〉의 법성게에 음표를 붙인 〈화엄원융찬〉 △의적의 〈보살계본소〉 △제관의 〈천태사교의〉 △지눌의 〈화엄론절요〉 사본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 △확심의 〈원종문류집해〉 등이 소개되고, 태현의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일본 주석서가 처음 공개된다. 이 밖에 고산사의 원효상과 의상상도 전시된다.

김종욱 동국대 HK연구단장은 "이번 전시와 학술대회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원효학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신라 불교와 고려 불교의 사본과 간본 및 문헌들이 총망라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가나자와문고는 일본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헌이 가장 방대하게 집성된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전적을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굴지의 문고이다. 신성민 기자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신진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6월 26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안유숙(동국대)의 '유가사지론의 사마디 수행 연구' △계미향(동국대)의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 연구' △담준 스님(동국대)의 '원효윤리사상의 연구' △장성우(동국대)의 '초기불교의 경영사상 연구'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송광사 53불도, 時空 충만한 여래 상징"

송광사, 23일 오불도 학술대회 및 특별전

40여 년 전 도난됐다가 지난해 12월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서 송광사로 돌아온 불조전 오불도(五佛圖)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진화)는 6월 23일 경내 성보박물관 로비에서 오불도 관련 학술대회와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광사 오십삼불도와 오십삼불상에 대한 연구와 종단 국외성보환수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환수된 오불도는 송광사 불조전에 봉안돼 있던 '오십삼불도(五十三佛圖)' 중 하나로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 경전으로 한 불화로 조성사례가 드물다.

송광사의 불조전의 오십삼불도는 △칠불도 1폭 △구불도 2폭 △십삼불도 2폭 △오불도 2폭 등 모두 7폭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오불도 2폭이 도난됐다. 이후 지난해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1폭이 기증되어 6폭이 됐다. 이 오불도는 송광사 불조전의 왼쪽 출입문 벽에 있던 것으로 오른쪽 출입문에 있던 나머지 1폭의 오불도는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관은 '송광사 불조전의 오십삼불도 연구'를 통해 오불도가 봉안됐던 송광사 불조전의 구조와 구성을 살폈다.

정 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1969년부터 5년동안 진행한 전국 사찰 소재 불교회화 조사 사업의 송광사 연구 결과를 주목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액자 형태인 '오십삼불도'는 원래는 상 · 하단 축을 부착한 족자 형식이었고, 1970년 이후 보존 처리를 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알게 한다. 중앙 주출입문을 두고 서단과 동단에 협문이 있는데, 그 중 양 끝의 한 짝을 고정시키고 문과 우주(隅柱) 사이 좁은 벽면에 불화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불상과 불단 등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환수된 송광사 불조전의 '오불도.' 본래 불조전 '오십삼불도' 중 하나로 조성 사례가 극히 드문 귀중한 불화다.

53불도 삼신 · 오방불로 시작
과거 · 미래 천불 존상 마무리
특별전, 국보 문화재도 공개

1969년 조사 연구와 현 상태를 분석한 정 연구관은 "반환된 '오불도'는 제48, 제50, 제52, 제53 일체상만왕불까지 도해라고 미래 천불을 대표하는 미륵불을 추가했다"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다른 '오불도'에는 제45 우담발라화수승왕불, 제47 아축비환희광불, 제49 재광불, 제51 산해혜자재통왕불이 도해되고, 과거비바시불이 배치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조전 오십삼불도는 삼신불과 오방불에서 시작돼 53불이 순서대로 배치되고, 불화의 마지막은 과거천불과 미래천불을 상징하는 존상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1725년 의겸이 맡았던 송광사 불사의 맥락서 오십삼불도 불사의 의미를 살펴봤다. 정 연구원은 "의겸은 삼신불과 오방불을 전각 중앙에 배치해 불신과 시방삼세 부처를 아우르는 중심축을 삼았다"면서 "불조전의 건축 구조와 공간의 쓰임을 의식하고 이미 존재했던 불상과 뒤에 거는 불화의 역할을 함께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광사 오십삼불도는 시공간에 충만한 여래에 대한 사고를 보여준다"며 "건축 공간 안에 불상과 불화가 종합적으로 구현된 귀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은석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순천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상 연구'와 신유철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의 '조계종의 국외소재성보환수정책과 성과' 등이 각각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환수 오불도를 비롯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불조전 오십삼불도와 불상 일부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그간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국보 제43호 목조삼존불감과 국보 제314호 화엄경변상도도 출품된다. 두 국보의 전시 기간은 오는 7월 23일까지 한 달동안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 타임캡슐 '불복장' 총망라

주목! 학술서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의 〈조선 불상 복장기록 연구〉

조선 불상 300기 복장물 분석 불교사 연구 기초자료 의미 커



"서방의 교주 아미타불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연이 있어 한편 피불(彼佛)이라고도 칭하니, 중생을 인도하여 구연대(서방정토) 위로 들어간다. 〈중략〉 널리 존귀한 사람과 미천한 사람들에게 고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열반의 아름다운 뿌리를 심어서 다행스럽다."

이 글은 조선 태종 후궁 의빈 권 씨가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했던 금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영주 흑석사 아미타불상의 권선문(1457) 중 일부다.

금성대군을 아들처럼 보살폈던 권 씨가 주도해 만든 아미타삼존상은 특이하게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조성한다. 이는 모두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금성대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불상 내 안치되는 복장(服藏) 속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상을 점안하기 전 내부에 사리와 경전 등 넣는 복장에는 불상의 명칭, 조성 연대, 봉안 장소, 불상을 만든 장인, 조성에 참여한 사람과 신분, 조성 배경 등이 자세하게 쓰여진 기록물이 함께 안치된다.

복장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열 수 없어 이를 한국불교전통문화의 '타임캡슐'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불교미술사 연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가 최근 발간한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는 불복장 연구와 자료의 집적(集積)을 이룬 의미 있는 연구서이다.

유 교수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선시대 조성된 300기의 불상 복장기록을 분석하고 원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 교수는 조선시대 불사 동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는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불상이 조성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조선 전기에는 억불숭유 정책 아래에서도 왕실의 후원이 지속되지만 시대가 내려올수록 조선불교계는 차츰 자력으로 불사(佛事)를 진행하면서 수행자인 승려를 중심으로 서민화된 불사를 추진했다.

많은 백성들이 불상 조성에 나선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인의 극락왕생,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세이익적인 무병장수와 종교적인 깨달음을 기원한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의 천불상 조성에 관한 1817년의 기록을 보면 총 976명의 시주자들이 동참했는데, 스님과 일반신자로 구분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속가 부모님의 영가천도를 발원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효를 강조했던 당시 조선시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서에 대해 유 교수는 "조선시대 불상 조성기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지만, 불상 조성기 자료가 집성되고 분석이 이뤄진다면,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와 불교사 연구는 한층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선불교 사상을 논하다

금강대, 韓 · 中 · 日 국제불교학술대회

7월 1~2일 日도요대서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학자들이 선불교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 도요(東洋)대에서 제6회 한 · 중 · 일 삼국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중국의 런민(人民)대 불교와 종교학이론연구소, 일본의 도요대 동양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동아시아 선불교 사상과 의의'를 주제로 진행한다.

학술대회서는 한국 측에서 박건주 전남대 교수가 '〈보리달마론〉의 선지(禪旨)와 그 의의',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고려말 간화선 전통 성립의 역사적 배경', 최은영 금강대 HK교수가 '북조 승조 선사의 습선법(習禪法)'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장원량(張文良) 런민대 교수가 '〈능가경(楞伽經)〉과 중국화엄사상', 싱동펑(邢東風) 에이메(愛媛)대 교수가 '원간본(元刊本) 〈임제록〉에 관하여', 쉬원밍(徐文明) 북경사범대 교수가 '불인요원선사의 문인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일본 측에서는 도호쿠(東北)대 사이토 토모히로 교수가 '선문답의 탄생과 공안선으로의 전개', 야나기 미키야스 하나조노(花園)대 국제선학연구소 교수가 '무소소세키와 〈종경록〉', 타치류우시 도요대 동양학연구소 교수가 '중세 선림(禪林)에 있어서 단오(端午)'를 발표한다.

이들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은 내년 3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 · 중 · 일 삼국의 3개 대학 연구소가 순차적으로 학술교류를 지속하는 행사다. 동아시아 학술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대와 도요대 · 런민대는 10년 동안 '불교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제1회 학술대회를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20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후 매년 동아시아 불교에서 나타난 사상과 논쟁 등을 다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 발기인 일동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연인원 9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윤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